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2주일(예수성심 성월)

제28권 30호(가해) 2008.6.22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투명하다고 다 바람이겠습니까
두꺼운 우리도 그만 못하지 않지요.



마음놓고 다가서다 부딪친 기억...
호리고도 많은 사람들 마음...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람은 기압의 변화로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을 육안(肉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지 바람의 특성인 방향과 속도 때문에
사물과의 마찰과 그 흔들림을 통해
바람의 소리와 모양을 알 뿐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한 마음이 다른 마음과 만나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서로 부딪히고 흔들리면
그 씹씹이와 뽀뽀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서로 만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이다.(人)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 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생) 고천웅과 고규재 채철리아 가정, 홍 관
주 일 낮 미사	(연) 김종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유용례, 김시형 시릴로, 김인영 베드로, 김종규, 박남길, 박을당, 정윤봉 베드로, 심재순
	(생) 이금순 마리아, 고천웅과 채철리아 가정, 이종민 요셉, 김숙희 심포로사, 김우용 시몬 가정, 김용 스테파노 가정, 김성일 바오로 가정, 최대연,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최예력 스테파노, 이의남 시몬과 카타리나 가정, 본당 재무평의회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서(Jeremiah) 20,10-13

화답송 ◎주여, 당신의 넓으신 자비로 나를 도우소서.
<전례성가82, 연중 제12주일 A해>
○내 몸소 능욕을 당하여 부끄러움에 낯을 들 수
없음은 오로지 남 때문이 아니오니까.
나는 형제들에게도 탄나라 사람,
내 어미의 소생에게도 남이 되었나이다.
당신 전당에의 열성에 나는 불타고, 남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내게 떨어지지 않았나이다.◎
○주여, 나는 은혜로운 때에 당신께 비오니,
그 넓으신 자비, 진실된 사랑으로 나를 도우소서.
님의 자비하심 너그러우시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그 사랑 지극하시니, 나를 굶어 살피소서.◎
○없는 이 보고들 즐거워하라. 주를 찾는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구어라. 가난한 이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이를 어여뵈여기시는 야훼님
아니시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송하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2-1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10,26-33

영성체송 주님, 모든 눈이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10	310
봉헌	259	259,194
성체	423	304,302
파견	402	227

13.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천주의 성모,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마리아의 참 아드님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의 영원하신 아드님 성자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천주의 성모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세례성사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로마 12,5)을 이루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는 그리스도와 결합된 우리 모든 신자의 어머니이시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요한 19,26-27) 그 날부터 사도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였으며, 그 제자들은 물론 초대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당부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이다.

▶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느님이시니,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성령에 의한 동정 잉태를 받아들여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심으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그리하여 성모 마리아께서는 구세주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곁에서 당신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실 때 당신도 모든 것을 봉헌하셨다. 이와 같이 성모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함께 참여하셨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올 어머니로 받들며, 그분께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는 것이다.(교회헌장, 53항 참조)

▶ 마리아와 성인 공경

우리는 성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빌어 달라고 기도한다. 그렇다고 성인들을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하여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처럼 굳은 신앙 속에서 하느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받들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 줄 것을 청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것을 ‘전구’(轉求)라고 한다. 교회에서 신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늘 성모 마리아께 공경을 드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바쳐 왔다. 우리의 마리아 공경은, 물론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연히 고귀한 품위를 지니시지만 역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마리아 공경은 과장도 부족도 없는 가장 합당한 공경이다.

◆(CBCK 제공)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오늘 주일)을 맞아

하느님의 힘에 의한 일치와 화해

마태오 복음<7,1-5>은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 서 들어 주신다는 것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정의할 때 흔히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 혹은 '과연 하느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는가?' 하는 질문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 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신명 30,1-3).

오늘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스스로 하느님을 벗어나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서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혹은 입으로는 하느님을 부르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는지 솔직하

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는 새 생활의 규범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라는 권고입니다. 사실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특별히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에페 5,2)라고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만 청했는지 아니면 진정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저 내 마음 속의 미움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화해와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도우심임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인간 안에 자리한 분열과 다툼이 인간의 이기적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해와 일치는 하느님의 힘에 의해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하느님의 손길로 바꾸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가 아닌 매일의 기도 지향이었으면 합니다.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레센치아	신덕례 테레사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박선규 라파엘	김교복 레오	서병교 라파엘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최귀환 펠릭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서해경 세라피나	제2독서자	방영화 요세피나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제물봉헌자			P.V. 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 신임회장에 본당 신부님 임명
백삼위 본당의 주임이신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께서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리며,
임기중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 백삼위 주일학교/한국학교 여름방학

● 기간 : 6월15일~8월31일(주일)

● 개학 : 9월7일(주일)

● 주일 학생미사(오전9시30분)는 계속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여름방학중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
도록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 새학기 등록 : 개학 무렵에 다시 신청받습니다

◆ 세계M.E.(WWME) 40주년 기념 컨벤션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 문의 : 오영섭 ☎310-922-1502

◆ 목요교리반 세례성사

● 세례식 : 6월29일(주일) 11시 미사 중

● 축하식 : 낮미사 후 강당

● 대부모님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고, 영세자들이 속한 구역장
과 반장님들의 참석도 바랍니다.

◆ 양업회 임시총회 안내

● 안건 :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건

● 일시 : 6월29일(주일) 오후 1시30분, 유아실

◆ 각급학교 졸업생들 축하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은 각급학교에서 졸업식이 거
행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하느님의 은
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축하합니다. ◎

◆ 혼배성사 : 2008년 6월28일(토) 오후 4시

♡ 강호광 스테파노 & 신정원 마리아 ♡

● 주 레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부모님 : 최마열 클라라

신순철 가브리엘 & 신덕례 데레사

◆ 남가주 제28차 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푸르실료에 참가할 신자들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남성 : 7월3일(목)~6일(주일)

· 최진수 에우세비오 · 최재은 베드로

· 권진열 피테스 · 정동호 하삼바오로

● 여성 : 7월31일(목)~8월3일(주일)

· 이명순 크리스티나 · 정정현 베네딕다

· 정병옥 율리아 · 천남숙 리디아

◆ 백삼위 성모신심 특강

● 강사 : 최경용 신부(부산 구포본당 주임)

● 일시 : 7월7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전

● 대상 : 본당 전신자 및 타본당 신자

◆ 빈첸시오회에서 안쓰는 묵주 등 성물을 수거합니다.

각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묵주나 성물이 있으면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남미에서 선교하는 한국 수도원에 보내드립니다.

◆ 상본 콜링카드(전화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간 1분에 2.7센트

● 가격 : \$20(사무실에 비치)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2일(주일) : 토런스 남 1반 (비빔밥 \$3)

● 6월29일(주일) : P.V. 1/4반 (도시락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곽효식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김상억	김완태
	김 욱	김원모	김윤진	김재영	김충섭	민경근
	민찬기	박상준	박인식	방세훈	배기엽	안연숙
	오영섭	우영희	육근주	윤경옥	윤석구	이병찬
	이재정	장수창	정상봉	정인식	조준제	최길주
	최수복	최태훈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황철수
	한길선례					
합계 : \$4,680						
미사헌금 : \$3,285.50						

성전헌금	곽효식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김 욱	김원모
	김윤진	김충섭	민경근	민찬기	박상준	박인식
	방세훈	배기엽	안연숙	오영섭	우영희	육근주
	이병찬	이일길	이재정	장수창	정상봉	조준제
	최길주	최수복	한금순	한창주	한혁수	
	한길선례					
합계 : \$3,780						
감사헌금 : 윤석구						

이 주간의 축일 (6월22일~6월28일)

축하합니다.

- 22일 : 토마스 모어 주교 순교자, 요한 피셔 주교, 바울리노 주교, 알비노 순교자, 콘술시아 동정녀, 로트루다 동정녀
- 23일 : 리베르토 주교, 히들포 증거자, 아그리피나 동정 순교자, 에델드레다 동정녀
- 24일 : 요한 세자 탄생, 심플리치오 주교, 알레나 동정녀, 이반 은수자, 바르톨로메오 은수자
- 25일 : 아달베르토 증거자, 솔로몬 순교자, 갈리카노 주교, 막시모 주교, 고하르도 주교 순교자, 몰로나코 주교, 에우로시아 동정녀
- 26일 : 펠라지오 소년 순교자, 바질리오 주교 순교자, 살비오 순교자, 안텔모 주교
- 27일 :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 학자, 라디슬라오 왕, 삼손 증거자, 페르디난도 주교
- 28일 : 이레네오 주교 순교자, 플루타크 순교자, 제르마노 원장, 알모 원장, 마르셀라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청소년들을 위한 꽃동네 Summer Camp 피정

- 일시 : 6월26(목)~29(주일), 3박 4일
- 대상 : 7학년~12학년
- 참가비 : \$120 ☎ 951-302-3400

◆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3일(목)~6일(주일)
- 지도 : 최석현 마르코 신부, 주최: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자
- 신청 : 6월20일까지, 회비 : \$170
- 장소 : 테베쿨라 꽃동네 ☎ 714-458-4687 John Cho

◆ 남미 의료 봉사단 파견

- 일시 : 7월7일(월)~16일(수), 에콰도르 파야칼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LA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 참가비 : \$1500 ☎ 213-272-7404 김안나

◆ 청소년을 위한 한국 꽃동네 봉사 및 성지 국토 순례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9일(수)~22일(화)
- 인원 : 선착순 25명, 참가비 : \$500(비행기표 별도 구입)
- 신청문의 : 꽃동네 ☎ 951-302-3400

◆ 한국정부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모집

한국의 영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대통령 장학생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http://talk.mest.co.kr>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21(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6/13(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충섭 마틴 533-1435 6/21(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최상만 사비노 540-9230 6/13(금) 오후 7시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6/10(화)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13(금) 오후 7시
	2	임진희 한나 720-7898	양희숙 오티리아 328-7795 6/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안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6/14(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6/13(금) 오후 7시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베스 326-2283	주다니엘 530-3470 6/14(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6807 6/13(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서병교 라파엘 544-6377 6/20(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임엘렌 373-1690 6/4(수) 오전 10시30분

과학으로 세상보기 ②

의식(意識)의 생물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수세기동안 의식의 본질에 대한 토론은 철학자들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토픽으로 쏟아져 나오는 서적에 나타나는 징후가 있다면 과학자들이 이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의 본질은 철학적 질문에서 실험을 해서 풀 수 있는 과학적인 질문으로 변한 것일까? 그 대답은, 이 주제와 연관된 것과 같이, 질문자에 의존한다. 그러나 믿을 수 없고, 오래된 이 질문에 대해 과학적 관심은 점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확실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의식에 대한 이론은 몸과 정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한, 17세기 중반의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데카르트의 결론은 몸이 시공간에 존재하고, 반면에 정신은 공간적 차원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최근 과학적으로 치우친 의식에 대한 설명은 데카르트의 해석을 일반적으로 부인한다. 특히 몸과 정신을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상으로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의식은 뇌에서 뉴런(neuron)의 성결과 조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으로, 본질적으로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의 의식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의식에 손상을 받은 신경계 환자들에 대한 진단결과에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뇌간의 어떤 오랜 발달 구조에 손상을 받으면 인간의 의식 전체를 빼앗아 끊임없는 식물 상태, 코마(coma)가 된다. 비록 이 부분이 의식의 마스터 스위치일지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의식에 대한 다른 양상들은 아마 뇌의 다른 영역에서 생성될 것이다. 예로, 대뇌 피질의 시각영역에 대한 손상은 시각기능에 이상한 결손을 만들 수 있다. D라는 환자를 깊이 연구한 결과, 모양이나 수직 디스크의 홈의 방향도 인식할 수 없다. 환자에게 홈에서 카드나 슬라이드를 빼도록 요청할 때는 너무도 쉽게 한다. 어떤 레벨에서, D 환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홈의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잘 설계된 실험에서 신경계 손상 없이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적 지식을 비슷하게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실험에 관여된 주체의 뇌를 스캔함으로써 의식적 자각에 필요한 신경계 활동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원숭이를 통한 실험에서 항상 의식의 양상, 특히 시각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실험적 접근법은 원숭이에게 한 번에 한 가지 그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 “쌍안정의 인식”을 창출하는 착시현상을 주는 것이다. (방향변화 네커 큐브는 잘 알려진 샘플이다.) 원숭이들은 그들이 인지하는 버전을 가라기도록 훈련받는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원숭이의 인식에 참여하는 뉴런의 트랙을 찾고, 뉴런이 시각인식에 참여하는 신경계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장미를 보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망막에 부딪히는 특정 광자의 패턴을 설명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수행하는 대부분의 실험은 ‘의식’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에 관심을 갖는다. 의식을 갖는 사람 마음의 가장 불가사의한 양상인 “나라는 느낌”을 다루는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그 연구들도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다. 뉴런의 얽힘에서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학자들은 단지 의식의 생물학적 기초뿐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어떤 선택적 압력이 의식이 나타나도록 이끌었으며, 우리 주위의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몇몇 연구자들은 의식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의식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이 있다면, 의식이 사람의 전유물인지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의식의 초기 발달과정에 대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식의 유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가사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까지도, 의식을 연구 주제로 정하는 것은 확고한 입지를 가지지 않은 연구자들에게는 흔쾌히 택할 수 있는 연구 경력이 아니었다. 운 좋게도,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지금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찍어낼 인쇄기를 앞으로 바쁘게 할 것이다.

◆글 / Charles Seife>